

새해 국립공원, 이렇게 달라졌다



김성수 |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전산실장

정해년 새해 첫날,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은 확 달라진 국립공원의 모습에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우선 입장료가 폐지됐다.

입장료를 받던 매표소는 '시인마을'로 탈바꿈했다. 바로 새로운 '국립공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편의를 위해 각종 공원관리 및 서비스 체제를 바꿨다.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 시행, 신용카드 결제, 탐방객 셋길 출입통제 강화 등이다.

◇매표소가 '시인마을'로 탈바꿈했다

오랜 세월, 탐방로 입구부터 탐방객을 가로 막았던 매표소가 사라지고 탐방에 관한 정보 제공과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시인마을(탐방지원 센터)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삼천리 금수 강산을 음유(吟遊)하던 시인처럼, 여러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탐방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시인마을'에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인들의 시를 총 10권으로 제작한 시집을 마음껏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산 길에 만나는 '시인마을'에 꼭 반납해 주기 바란다. 이제 여러분도 자연 속에서 시인들과 함께 마음껏 자연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리산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인 용산 민자역사 내 현대아이파크 레포츠크백화점 4층에 국립공원 홍보관인 '자연in'을 개관했다. 국립공원 현황 소개 및 탐방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거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리산국립공원의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 공기 체험관'에 있다. 지리산 노고단 정상부에서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공기통에 압축, 이곳으로 운반해 희망자는 2~3분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오염된 서울 공기에 찌든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천 450m³ 부피의 지리산 공기를 11l 들이 공기통에 압축, 1주일에 20통 분량의 공기를 사용한다.

◇탐방객 있는 곳이면 직원이 있다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방객이 집중하는 거점 149개소에 직원 293명을 배치해 탐방안내, 순찰, 단속, 구조활동 등을 강화하는 '탐방객 거점지역 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탐방문의 및 탐방서비스가 요구되는 탐방로 입구부터 능선, 정상부근까지 탐방객 거점별로 직원

을 집중 배치해 자연보전 및 고객 만족을 위해 '탐방객이 있는 곳이면 직원이 있는' 탐방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시행한다

자연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도입된 자연휴식년제를 개선, 보호 목적별로 새롭게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시행했다. 기존 휴식년제 시행지역과 멸종위기종 분포지역을 대상지별로 재분류해 야생동물 서식지, 식물 서식지, 습지, 계곡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리산 등 전국 16개 국립공원 54개 지역에서 시행목적에 따라 면적 단위로 시행되며 앞으로 해상·해안자원 분포지역에 대한 대상지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대피소 등 공원수익 시설물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시스템을 도입한다.

2007년 1월 현재, 총 131개 대상 시설물 중 북한산 정릉 주차장 등 9개소,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등 8개소는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리산 중산리 주차장 등 47개소, 설악산 설악동 야영장 등 33개소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민간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200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인에게 신용카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시설 이용 예약제 확대된다

국립공원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인 대피소와 야영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시설 이용예약제를 전국 국립공원의 27개 시설로 확대 운영한다.

사전 예약 후 취소도 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예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새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온라인 사전 결제 지불 시스템을 도입한다.

◇샛길 출입, 절대 안된다

탐방객 증가와 함께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내 샛길 240개 구간에 대한 전면 통제 및 샛길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샛길출입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동이다.

백두대간 종주산행을 위한 통제구간 및 샛길 출입 통제는 물론 일부 산악회에서 모집하는 불법산행에 따른 취사, 야영, 야간 산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출입 통제구역은 국립공원 사무소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고돼 있다.

새해, 국립공원은 입장료 폐지와 함께 새로운 '국립공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고 있다. 이제 국립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함께 국토의 허파, 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